

『시경(詩經)』의 형성 — 서주(西周) 말 사회적 혼란과의 관계¹⁾

교토대학 명예교수, 센오쿠 박고관 관장

고미나미 이치로(小南一郎)

1.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노래되는 가요(歌謠)의 내용에는, 물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근간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전승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현재 노래되고 있는 민요와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나 가락의 가요가, 신석기시대의 촌락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가창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전승 가요의 근간 부분은 시대 변화를 초월하는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 신석기시대의 농경사회가 이윽고 고대 왕조사회로 전개되더라도 사람들의 생활이 농경이라는 기반 위에 성립되어 있는 한 생활에 뿌리를 내린 가요의 근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리라고 추측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승 가요를 기초로 하면서 지식인들이 제작하는 가요는 그것과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집단 속에 자기 자신의 상념을 매몰시키지 않고 자신이 그 소속 집단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출현하여, 그것이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제작하는 가요에는 전승 가요와는 달리 시대의 존재방식이 짙게 반영되게 된다.

20세기 초 이래 『시경』 연구는 민간가요(民間歌謠)라는 관점을 중심에 두어, 국풍(國風)의 여러 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이 많았다. 중국 고대의 농촌공동체 생활의 구체적 양상(계절 행사 등)을 복원하여 그 속에서 노래된 가요로서 『시경』을 이해하려고 여러모로 시도해 왔던 것이다.

다만 『시경』이라는 가요집(歌謠集)의 형성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우선 성립한 것이 종교적인 가요인 주송(周頌)이고, 이어서 의례적(儀禮的)인 장(場)에서의 음악을 기초로 하는 대아(大雅)와 소아(小雅)가 성립하였다고 추측된다. 국풍 부분이 부가된 것은 최후의 단계이며, 아마도 그것은 춘추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시경』의 제1차 편찬은 서주(西周) 말, 혹은 춘추시대의 극히 이른 시기였다고 상정(想定)하고 있으며, 그 단계의 『시경』은 송(頌)과 아(雅)의 두 부분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국풍 부분은 아직 부가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가요의 근간 부분은 초시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이 표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작품집으로 편찬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

1) 고려대학교 도서관 초청 해외석학 특별강연 원고, 문과대학 한자한문연구소,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센터 주관, 2014년 6월 11일 고려대학교 교양관 602호.

고 그러한 가요를 대상화하여 보는 시점이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또한 그러한 가요군(歌謠群)을 하나의 가요집(歌謠集)으로 편찬하려는 사람들의 강한 의욕이 불가결하다. 가요 작품을 대상화하여 보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의 시점이며, 작품을 가요집으로서 정착하려는 의욕은 시대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장한 것이다.

『시경』의 제1차 편찬이 서주 말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회 상황이 그 편찬의 원동력으로 되었던 것일까? 서주 말의 사회적 혼란이 정치비판이나 비통한 심정을 표명하는 작품[주로 변아(變雅)라 불리는 작품]을 낳았다고 하는 설명은 종래에도 있어 왔다. 그러한 설명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개별 작품이 성립한 원인을 설명해 주어도 『시경』이라는 가요집을 편찬한다고 하는 동기 및 의욕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서주 말의 사회적 상란(喪亂) 속에서, ‘언어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인식이 이루어진 것이 『시경』의 제1차 편찬의 가장 심층에서의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경』이라는 가요집의 형성에 대한 나의 상정(想定)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서주 말의 상란을 반영하는 『시경』의 여러 시편(詩篇) 가운데는 참언(讒言)의 유행(流行)을 비난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악의를 지닌 언어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분열시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소아(小雅)의 「교언(巧言)」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亂之初生 혼란이 시작된 것은
 僭始既涵 참언이 사회에 스며들어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亂之又生 혼란이 더욱 심해진 것은
 君子信讒 위정자들이 참언을 믿었기 때문이다.
 君子如怒 위정자가 참언에 대해 분노한다면
 亂庶遄沮 혼란은 곧바로 수그러들 것이다.
 君子如祉 위정자가 올바른 언론을 좋아한다면
 亂庶遄已 혼란은 곧바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악의 가득한 말이 사회에 널리 유행하여 위정자들이 그러한 참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만일 위정자들이 그러한 말의 악용을 분연히 거부한다면 혼란은 신속하게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악의의 말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참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강한 분노는 소아(小雅)의 「항백(巷伯)」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彼譖人者 저 참언을 하는 자들
 誰適與謀 그 모의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무리인가
 取彼譖人 저 참언하는 무리를 붙잡아서
 投畀豺虎 맹수에게 던져라
 豺虎不食 맹수가 그자를 먹지 않는다면
 投畀有北 북방의 신에게 던져라
 有北不受 북방의 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投畀有昊 천신의 곳에 던져 보내라

제2구의 의미는 조금 파악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패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러한 집단에 가담하는 것일까, 하는 의미일 듯하다. 참언을 하는 무리들은 큰 세력을 지녀서 이 현실사회의 규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맹수에게 먹이고, 맹수도 먹지 않는다면 북방의 신, 그리고 하늘의 신의 곳으로 보내서 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사회의 혼란을 우려하는 이 시편들은 서주 후반기의 사회 속에서 발생하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한 작품 속에서는 당시의 정치적 투쟁이나 이민적의 침공 등 구체적인 양상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언어, 특히 그릇된 언어가 큰 힘을 지니고 사회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이 시기에 성립한 시편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아(大雅)의 「억(抑)」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白圭之玷 하얀 규옥에 흠이 있다 해도
 尚可磨也 그것은 갈아서 바로잡으면 된다
 斯言之玷 하지만 언어에 부착된 상처는
 不可爲也 수복(修復)할 수가 없도다

태고의 시기에는 힘을 지닌 것은 신의 말뿐이었고, 인간의 말은 전혀 무력하였다. 신의 말은 늘 옳았으며, 가요의 처음 시작의 하나는 그러한 신의 말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주 말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언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현실사회에서 악의에 찬 인간의 언어가 큰 힘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신의 올바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악의에 찬 언어이었던 것이다.

『시경』을 이루는 시편들을 산출한 서주 말 시인들의 근본적인 의향은, 시편 제작을 통해서 그러한 부정한 말에 대해 저항하고자 한 점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사실은 이를테면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편이 다음 말로 끝맺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엿볼 수가 있다.

爲鬼爲蜮 그대가 망령(亡靈)이요 악귀(惡鬼)라면
 則不可得 붙잡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有覩面目 너는 사람으로서의 낯짝을 지니고 있으면서
 視人罔極 그 정체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구나
 作此好歌 그래서 이 훌륭한 노래를 지어서
 以極反側 너의 무책임한 행동을 추궁해서 그 본질을 폭로하노라

무책임한 짓을 하는 자의 실제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시편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노래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대아(大雅)의 「상유(桑柔)」편도 다음 말로 매듭지어져 있다.

民之未戾 민중의 마음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職盜爲寇 도적(盜賊)같은 위정자가 민중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涼曰不可 나는 그런 포학(暴虐)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復背善言 나의 말에 위배하여 함부로 험담을 하다니
 雖曰匪予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既作爾歌 이미 너희들의 노래를 만들어 두었다

이 시의 마지막에, 시편에 너희들의 노래가 노래되어 있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교묘한 변설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도 노래에 의해 추궁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힘을 지닌 인간의 악의에 찬 언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노래[『시경』의 시편]라고 표방(標榜)되어 있는 것이다.

3.

이미 위에서 인용한, 참언을 하는 자들을 맹수에게 먹게 하겠다고 노래한 소아 「항백(巷伯)」편은 이런 단락으로 끝맺었다.

楊園之道 양원(楊園)에의 길이
 猗于畝丘 묘구(畝丘)를 가까이 통과하는 부근에 [사는]
 寺人孟子 시인(寺人)의 맹자(孟子)가
 作爲此詩 이 시를 지었다
 凡百君子 모든 위정자들아
 敬而聽之 삼가 이 시를 들어라

여기서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시인(寺人)의 맹자(孟子)라고 선언하고 있다. 서주 말에 만들어졌으리라고 추측되는 시편에는, 다른 예에서도, 그 작자를 명기하고 있는 것이 몇몇 남아 있다. 이를테면 대아(大雅)의 「송고(崧高)」편에서는, 윤길보(尹吉甫)가 그 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吉甫作誦 윤길보가 이 노래를 지었는데
其詩孔碩 이 시는 정말로 기세가 장대하다
其風肆好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깊고도 깊도다
以贈申伯 그렇기에 이 시를 신백(申伯)에게 주노라

물론 이러한 기술(記述)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작자들을 근대적 시인과 동질의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편들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표하는 가상의 작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 작품이 개인의 책임 하에 제작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편이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제작되는 것이라는 관념이 형성된 것은 그 배후에,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지식인 집단이 형성된 사실이 가로 놓여 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항백(巷伯)」편의 마지막은 “모든 위정자들아, 삼가 이 시를 들어라”라고 하는 구절로 끝나고 있다. 악의에 찬 말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자신들의 시편이 단순히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들에게 청취되기를 바란 것이다. 자신들이 전승하는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널리 듣게 만들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서주 말, 춘추 초 『시경』이 최초로 편찬될 때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번역 : 심경호)